

# 갈등국면 확산... 장기화 우려

## 조계종 12일 선거 무산이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를 18일로 연기했으나 정화개혁회의는 이날 선거를 원천적으로 무효라 주장하고 있어 선거를 둘러싼 또 한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제42조 1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연기하여야 한다"와 3항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할 때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선거일만을 연기하여 추후 공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후보등록과 선거활동 등은 모두 유효하며 중앙선거위가 일정을 정하는데 따라 일정을 바꿔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는 이번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2일 선거 후보공고를 냈던 정화개혁회의는 초법적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18일 선거도 사전에 봉쇄할 계획이다. 13일 중앙총회를 저지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총회를 인정 할 수

없다는 배경에서였다. 월주스님 진영은 선거일정 조정을 적법한 절차로 보고 18일 선거에 임할 방침이다. 그러나 월탄스님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한 정화개혁회의는 이번 선거를 봉쇄하겠다는 방침이고 지선스님측도 월주스님의 3선출마를 부정하고 있어 선거위의 구상대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거기다 13일부터 원로회의와 중앙총회 사이의 갈등 기류가 형성된 것도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정 월하스님이 14일 원로회의의 스님들을 초청 원로회의를 열고 종회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던 말이 퍼지면서 13일 길상사에서 속개된 중앙총회는 원로회의법을 고쳐 종회해산선 요건을 강화했다. 14일 원로회의가 소집되고 종회해산이 논의될 경우 의장이 아닌 중정스님이 소집한 원로회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또 다른 쟁점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결국 월주스님의 총무원장과 월탄스님의 정화개혁회의, 중정을 중심으로하는 원로회의와 종회중립 질서 수호를 내세우는 중앙총회의의 대각 대립 양상이 형성되고 있어 선거국면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원로회의 의장 해암스님은 여전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 선관위 '18일 실시' 개혁회의 '무효' 주장 원로-총회-본사주지 '화합의 길' 찾아야

않고 있다. 종단의 안정을 위해 선거를 둘러싸고 얽힌 실태를 하루 빨리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3선 공방'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며 진행된 선거과정에서 입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로회의와 중앙총회 교구본사주지회의 등 공식 기구들이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더 이상의 '선거잡음'을 막는 지름길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원로회의와 중앙총회가 발전적



12일 선거업무에 위해 조계사 법당으로 향하던 선거사무원을 정화개혁회의의 스님들이 저지해 선거가 연기됐다.

- 9월15일: 설소스님 출마선언 기자회견  
 9월23일: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합의회 출범  
 9월29일: '승일주 총무원장 3선 출마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의 발족(총회의원, 승·재가단체 14개 단체 참여)  
 10월2일: 연대회의, 월주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장 성타스님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10월7일: 연대회의, 원주총무원장 편단 신정공문 총무원에 접수(8일·12일 연달아 요청)  
 10월8일: 공선협, 공정선거촉구 성명 발표  
 10월10일: 공선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승일주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 위원장 성타스님에 대한 고발장 접수  
 10월12일: 연대회의의 의장단, 월주총무원장 편단요청차 총무원 방문  
 10월13일: △공선협 기자회견  
 10월14일: △승일주총무원장후보추대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 △연대회의의 '승일주 총무원장 후보추대위원회'의 불법성과 자진해체를 요구하는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10월15일: 월주스님 후보추대위, '3선불가본'에 대한 반박문 배포  
 10월19일: 연백문도회 백양사에서 총회 개최  
 10월21일: 연대회의, 불교중흥과 중단안정을 위한 정진법회 병행  
 10월22일: △총무원장 후보 지선 월탄 설소스님, 원주총무원



△승려대회는 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불교 고유의 의전 수렴 방식이다. 사진은 11월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승려대회.

## 비상사태 해결책 찾는 대중공사

**전국승려대회의 의미**  
 조계종 중정 월하스님의 교시에 따라 11월 조계사에서 소집된 전국승려대회는 지난 94년 4.10 승려대회에 이어 4년 7개월만에 개최된 것. 승려대회는 종헌 및 종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처님 재세시부터 승단내 대소사의 사안에 관하여 전체 대중스님들이 모여 각기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민중정치로 합일된 의견을 창출해내는 '산중공사' 또는 '대중공사'로 불리우는 불교고유의 의전수렴 방식에서 유래한 것.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여 비상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회에서의 결정은 초종단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온 전통이 있다. 따라서 일종의 혁명이다(실패하면 구태). 사상 최대의 승려대회는 52년 11월 불국사에서 비구스님들이 중심이 돼 개최한 일명 정화불사(태고종에서는 '법년' 규정). 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 발표 이후 비구스님들이 55년까지 3차례 걸쳐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했다. 광복 이후의 전국승려대회를 정리한다. ▲1945년 9월 22~23일 전국승려대회=사할령 및 태고사법, 31분말사법 폐지, 조선불교 교헌 제정,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조직, 각도 교무원 설치, 교구제

총무원장 3선공방이 결국은 망신살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어느편이 옳고 그름을 떠나 언론은 일제히 11월 11일 조계종 사태를 '스님들과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중전 앞에서는 승려대회를 열었고, 뒤에서는 총무원 진영을 막으려는 보살들이 노래와 염불로 맞섰고, 영역경비대도 동원됐습니다. 급기야 보기 민망한 장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대중전 부처님, 덕왕전 지장보살님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찌

하셨습니까. 광바닥에 양쪽에서 달았던 리본 '불행 전국승려대회' 개혁 종헌중립준수가 나뉘었고, 신드들이 손목

에 차고있던 단주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이 어찌 리본과 단주뿐이었습니까. 무엇이 또 땅에 떨어졌는다고 물으신다면 땅을 생략

하십시오.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조계종의 선거를 개선해 주십시오. 성명서, 기자회견, 거액의 선거비용이 왜 필요합니까.

임기가 끝나면 새 총무원장이 나왔나보다 할 정도로 조용히 진행돼야만 합니다. 오로지 오로지 제값을 치루게 됩니다. 조계사 부처님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스님은 줄다리기에 안해?" 그 스님의 심정이 어찌됐습니까. 스님들끼리 그 어린이 기슭에 새겨진 '줄다리기에 어떻게 씻어내시겠습니까.

평소 스님들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인이 법문하네" 그 말씀입니다. 속인들이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국민의 스승, 정신적 교사일 수 있는

11월11일 조계사 마당에는 로이터 통신기사와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의 치부

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보도됐을 겁니다. 큰길 전광판

에도 큰 제목으로 뒀습니다. 이제 더이상 망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빨리 수습해 주십시오. 법문할 때 마다 설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태해결의 약으로 써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조계종의 선거를 개선해 주십시오. 성명서, 기자회견, 거액의 선거비용이 왜 필요합니까. 임기가 끝나면 새 총무원장이 나왔나보다 할 정도로 조용히 진행돼야만 합니다. 오로지 오로지 제값을 치루게 됩니다. 조계사 부처님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전군 용문소 백색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왕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진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신앙을 있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모험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는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지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염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축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 지 청 안 합 장

일시 : 1998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1998년 11월 27일(음 10월 9일) 오전 10시

- 등(1인당)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사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할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 당일엔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여 록원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문의 : (0584)655-8695(중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정안사

**조계사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용문사 가는길**

버스 : 동서유대길 출발(06 10~6 30, 40분간격) 3시간 3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분 오후 5시  
 이시애(서울 ⇒ 예천) 오전 8시 오후 6시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삼승순례도**

대사사 10분 소요  
 김동사 30분 소요  
 경천포수(10분소요)  
 용문저수지(5분소요)  
 50분 소요  
 부석사 30분 소요  
 청원사